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이상준 팀장(2110-5581), 김성태 주무관(5586)
경찰청 외사수사과 장윤호 경감(3150-0380), 박만식 경위(0383)

무역위와 경찰청, 공조체제 강화로 영업비밀 침해 사각지대 없앤다

▶ 무역위,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업체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
▶ 무역위와 경찰청, 상호 협조하여 영업비밀 침해물품 조사 강화 계획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: 홍순직)는 '13.8.21일 제318차 회의에서 S사의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도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한 F사에 대해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하고, F사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함

□ F사 대표 K씨는 S사에 근무 중 취득한 회로도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노래방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

* 노래방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라오케 앰프(Karaoke Amplifier)로 S사의 제품은 베트남시장에서 널리 알려짐

○ 이에 따라, 무역위원회는 F사에 대해 3년간 해당 물품의 수출과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였고 이와 함께 48,388,115원의 과징금을 부과함

□ 이 사건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병과한 대표적 사례로, 무역위원회는 이 사건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강화의 의지를 표현함

* 종전의 과징금 부과 사례 : 살충제 및 살서제 영업비밀 침해('03), 두부·두유 제조기 특허권 침해('02), 굴삭기용 로울러 상표권 침해('97)

□ 또한, 금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무역위와 경찰청의 상호 공조를 통해서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

○ 처음 이 사건 관련 수사를 하였던 경찰청은 수사 후, 피의자의 불공정수출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무역위에 동 사건을 통보하였으며

○ 무역위는 F사가 경찰청 수사를 통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 및 수출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수출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

□ 그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피해기업에서 입증이 어려워 주로 경찰청에서 수사해왔으나, 형사 처분 뿐만 아니라 무역위의 행정적 제재조치*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* 무역위원회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, 침해 판정시 해당물품의 수·출입 통관이 배제되는 등의 실효적 제재조치를 취함

○ 무역위와 경찰청은 영업비밀 침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고, 추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

○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전문성을 갖춘 무역위원회의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경우, 그간 어려웠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

□ 무역위는 영업비밀침해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일 경찰청 담당과장을 포함한 5인의 영업비밀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, '영업비밀 침해조사 활성화방안'을 마련중에 있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김성태 주무관(☎ 02-2110-55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